

삼성전자·SK하이닉스, D램값 폭등에 '증설·수주전' 격화

2분기 계약가도 오름세 이어질 듯 AI 수요 확산에 범용·HBM 강제 삼성, 팹택 P4 첨단 D램 배치 유력 SK, 빅테크 장기공급 협상 속도전



삼성전자 팹택캠퍼스 전경.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D램 수요 증가에 대응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능력 확대와 장기 공급 계약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빅테크 고객사와의 협력 강화와 함께 차세대 공정 투자가 이어지며 메모리 시장 주도권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모습이다.

6일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2·4분기 D램의 계약가격은 전분기 대비 58~63%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주요 고객사와의 협상을 통해 2분기에 공급하는 D램 가격을 1분기 대비 평균 약 30% 인상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상에는 서버와 PC, 모바일 기기에 사용되는 범용 D램을 비롯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제품도 포함됐다.

앞서 삼성전자는 1분기 D램 평균 가격을 전분기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AI 가속기 공급이 급증했고, 이에 탑재되는 HBM 수요도 함께 늘어난 영향이다. 이후 가격 상승 폭은 다소 완만해졌으나 시장에서는 메모리 가격이 단기간에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삼성전자 제4 팹택캠퍼스(P4)항 설비 역시 최첨단 D램 공정에 집중될 전망이다. 해당 라인에는 10나노급 6세대(1c) D램 양산을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P4 팹은 낸드와 파운드리를 모두 양산하는 종합 팹으

로 설계됐으나 시황 등을 고려해 대부분 생산능력을 D램에 할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샘플 납품을 목표로 하는 HBM4E 코어 다이에 적용될 1c D램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회사는 해당 공정에 활용될 극자외선(EUV) 장비 투자도 당초 계획보다 3배가량 확대했다. HBM 최대 고객사인 엔비디아가 HBM4E를 탑재한 차세대 AI가속기 '베라 루빈 울트라'를 내년 하반기 출시할 계획인 만큼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MS)와 DDR5 장기공급 계약을 위한 최종 조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계약은 올해부터 3년간 적용되며 수십조 원 규모로 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는 구글과도 장기공급 계약을 맺기 위해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력인 HBM을 비롯해 서버에 들어

가는 범용 D램 공급이 핵심인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MS와 구글은 삼성전자와도 메모리 장기공급 계약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요 증권사들은 D램 가격 상승과 HBM 수요 확대를 반영해 실적 추정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삼성전자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을 50조원으로 내다봤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는 SK하이닉스의 같은 기간 영업이익을 31조5627억원으로 진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2분기 들어 D램 가격 상승 폭은 1분기 대비 다소 둔화됐지만, AI 서버 투자 확대와 고용량 서버용 DDR5 등 고부가 제품군의 수요 증가, 장기 공급 계약 협상이 맞물리며 가격 인상 흐름 자체는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집값 '하락거래' 비중 확대 강남중심 상승세 꺾였다

직방,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분석 3월 전국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44.5% 보유세·세제 변수에 매물 증가 영향

기존 집값보다 내린 가격으로 거래하는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강도 대출 규제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 거래가 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아닌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상승거래 비중은 44.5%로 전월 대비 3.5%포인트(p) 하락했다. 보합거래 13.3%, 하락거래 42.1%로 상승 거래 흐름이 다소 둔화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량 역시 2월 3만 8602건에서 3월 3만 325건으로 줄어 시장 전반의 거래 열기가 한풀 꺾였다. 수도권의 상승거래 비중은 44%로 전월 대비 6.5%p 낮아져 하락폭이 더 컸다. 하락거래 비중은 40.4%로 5.7%p 높아졌다.

서울의 상승거래 비중은 3월 51.4%다. 7.6%p 하락하며 지난해 8월 48.1%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월간 낙폭으로는 지난 2023년 11월(-7.9%p) 이후 가장 크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2월 61.2%에서 3월 50.0%로 11.2%p나 하락했다. 작년 8월 48.1% 이후 가장 낮다. 하락거래 비중은 2월 25.2%에서 3월 35.5%로 10.3%p 상승했다.

구별로는 강남구의 상승거래 비중이 40.5%로 전월 대비 18.2%p나 하락했고, 서초구도 53.1%로 13.2%p 낮아졌다.

직방 관계자는 "5월 보유세 부과 시점을 앞두고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로 앞둔 다주택자들의 매물 출회가 맞물린 영향으로 보인다"며 "특히 고가 아파트 비중이 높은 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일부 감지된다"고 설명했다.

/만상미 기자 smahn1@



애경산업·LG생진, 美 공략·中 유통 강화

>> 1면 '中 실적 시들...'서 계속

애경산업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 시장에서 스킨케어 브랜드 시그니를 공개하고 올해 들어 미국 대형 유통 매장에 헤어 브랜드 케라시스, 바디 브랜드 샤워메이트, 립센트 등을 입점시켰다.

이와 함께 전통 강세 지역인 중국에서는 유통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중국 이커머스 전문 기업 '넛탑스'

와 파트너십을 강화했다. 양사는 지난 8년간 글로벌 역지구 시장에서 협업한 바 있고 이번에는 넛탑스가 에이지투웨니스(AGE20'S) 중국 일반부역을 독점 총괄하게 됐다.

LG생활건강은 K웰니스와 고급 K뷰티라는 두 트랙 전략을 펼친다.

우선 두피관리 브랜드 '닥터그루트'를 핵심으로 네오 뷰티 부문을 신사업으로 육성하며 북미 시장에서 보폭을 넓힌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영양군 공고 제2026-322호

「영양군 시외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영양군에서 시행하는 영양군 시외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편입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조서의 내용을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7일



1. 사업의 개요

- 가. 사업명 : 영양군 시외버스터미널 복합화 사업
- 나. 사업위치 : 경북 영양군 서부리 일원
- 다. 사업량 : 영양군 시외버스터미널 및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
- 라. 사업기간 : 2027. 1.(예정) ~ 공사완료 공고일까지
- 마. 시행주체 : 영양군수 /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2. 보상계획 및 열람

- 가. 보상대상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참고
- 나. 토지조서 :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 다.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6. 4. 7. ~ 2026. 4. 22. (15일간)
- 라. 열람장소 : 영양군청 농촌경제과 교통정책팀(☎054-680-6741), 영양군청 홈페이지[고시/공고/입찰]에서 확인가능
- 마.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등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본인(신분증 지참)이 열람장소에서 열람 후 열람대장에 성명 등을 기재
- 바. 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
 - * 붙임1) 이의신청서 참고

3.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개별별 보상대상 토지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통지
- 나. 보상시기 : 보상 계획 공고 및 감정평가 후, 2026년 6~7월 중 보상 협의 예정
 - 보)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 다. 보상금 지급 방법
 - 손실보상협의 계약체결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입금(현금보상의 원칙)
- 라.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동법 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나 소유자가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2인)의 평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보상가격을 결정
- 마. 감정평가업자의 추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나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법인을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추천하여야 합니다.**
 - * 붙임2) 감정평가법인 추천서 참고

4. 기타

- 가. 상기의 보상계획 및 사업 시행기간 등은 추후 사업계획의 변경,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 등의 협의(확인)를 거쳐 변경될 수 있으며,
- 나.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주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다. 열람결과 대상물건 또는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 편입토지 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마. 기타 문의사항은 영양군청 농촌경제과 교통정책팀(☎054-680-6741)으로 문의바랍니다.